로컬플러스

익산보건소 건강생활센터 자원봉사

익산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난 14일 익산 효도마을 사은의집을 방문하여 7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오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7명은 익산 효도마을 사은의 집을 방문하여 요양 중인 어르신들에게 한방총명침시술, 기초건강측정(혈압·혈당), 신체구성비검사(인바디)를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줬다.

특히 한의사 출신 이진윤 센터장은 어르신들에게 불편한 곳은 없는지 일일이 안부를 확인하고 손수 침을 놓아드리며, 손끝으로 전하는 따뜻한 봉사를 실천하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해수청, 장항항 특별단속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은 군산·장항항의 항내 해상교통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항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군산해경, 군산시 및 서천군과 합동으로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항로나 정박지 등 수역시설에서의 어로행위 및 장애물 방치행위, 항만내 불법선박수리 행위 등 이며 위험물 하역현장에 대한 육상점검도 병행 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소방서 미륵산 일대서 산악안전사고 예방캠페인

익산소방서 는 미륵산 일대에서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산악안전사고 예방캠페인 및 자연보호 캠페인 을 실시했다.

봄철 및 행락철 산행 등으로 인한 등산인구 증가로 산악사고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등산객 보호 및 긴급구조 대응활동을 위해 소방공무원 등 40명은 미륵산 등산로 주차장 입구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 및 등산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 안전수칙 교육, 안전산행지도 교육을 전개했다. 산행 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산악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법 등을 안내하는 전단지와 홍보물을 배부 및 등산객의 기초건강체크 서비스 제공,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져 등산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신관동 신촌마을 주민 숙원사업

군장산단 인입철도 교량설치 추진

군장산단 인입철도 개설사업과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강력히 반발했던 군산시 신관동 신촌마을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해결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산북동 군장산단 인입철도 2공구 현장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 군산시, 신촌마을 철길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교량화 민원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인입철도 건설과정에서 신촌마을 진입로에 9m 높이의 토공공사가 진행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민큼 해결방안으로 교량화 설치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측은 토공 공사 시 일조권과 통행권, 조망권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교량화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군산대 인근에 위치한 신촌마을은 80여 가구 18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1994년 4m 높이의 전주~군산 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마을을 관통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남쪽으로 이주해 마을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다.

더욱이 군장산단 인입철도가 이곳을 관통할 계획으로 또 다시 3등분이 되는 현실에서 마을 진입로에 교량이 아닌 토공 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주민들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이날 주민과 사업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해당 공사가 토공이 아닌 교량화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2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교량화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용역안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교량화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변경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신촌마을 철길대책원장은 "교량화 설치에는 합의를 이뤄냈으나 관련예산을 하루빨리 확보해 더 이상 마을이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신촌마을의 경우 과거 전주~군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이어 철도사업으로 마을이 4등분 될 위기에 처한 민큼 반드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중국닝보~상해항로 컨테이너선 취항

9,500톤급 페가수스 제타호 투입…도내 화주 물류비 절감 · GCT 활성화 기여 전망

군산시는 16일 군산항 6부두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이하 GCT)에서 '군산~닝보~상해항로 컨테이너 정기선 취항식'과 함께 군산항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취항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동영해운㈜ 서명천 대표이사와 군산항 유관기관장 및 기업체 등 항만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군산항 신규 항로 취항을 축하했다.

신규 개설되는 군산~닝보~상해항로에 투입되는 페가수스 제타호는 9,500톤급(962TEU) 선박으로 주 1회, 매주 일요일 군산항에 기항하게 된다.

이번 항로개설로 그동안 타 항만을 이용하던 도내 화주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물동량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GCT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해운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취항을 결정해 준 동영해운㈜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항로개설은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주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영해운㈜ 서명천 대표이사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군산항과 인연을 맺고 중국 대련, 연태, 일본항로에 이어 이번에 닝보, 상해 항로를 개설하게 되어 기쁘다"며 "군산항을 자사의 허브포트로 키워갈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군산시는 2006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군산항을 이용해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선사, 화주, 포워더 및 물류기업에 180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새만금아카데미 홍양표 박사 초청 무료 강좌

내일 오후2시 군산시청 대강당

군산시는 창조적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 군산새만금아카데미 무료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18일 오후2시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한국좌우뇌교육계발 연구소 홍양표 박사가 '엄마가 1% 바뀌면, 아이는 100% 바뀐다'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홍양표 박사는 강연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의 고민인 인성이 바르고 똑똑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두뇌학 계발 등의 비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이어 뇌 균형 계발의 중요성, 뇌 선호도에 따른 자녀 맞춤 교육법과 좋은 인성을 갖춘 아이로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 올바른 대화습관 등 자녀교육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들려준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강의에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 부모들이 많이 참여해 내 아이를 인성이 바르고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양표 소장은 두뇌계발과 자녀교육 전문가로 아동들의 두뇌능력을 분석하는 두뇌종합프로그램인 BGA(Brain General Analysis)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KBS 아침마당, SBS 좋은 아침, EBS 60분 부모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두뇌 교육의 중요성과 부모 역할에 대해 강조해 오고 있다. 또한 '우리아이 천재로 키우는 법', '엄마 나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엄마가 1% 바뀌면 아이는 100% 바뀐다' 등 300여 편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직원의 임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광대 치과대학 학생들 논문 대한치과의사협회지 게재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치과대학 치의학과 2학년 박영찬, 1학년 정성현, 박성남씨가 공동 참여한 논문이 대한치과의사협회지 5월호에 게재됐다.

'치과 의료 기관 직원의 임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제로 한 이 논문은 박영찬 씨가 제1저자로, 정성현, 박성남씨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치의학 관련 대표 학술지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인 대한치과의사협회지는 치과의사들도 논문게재가 쉽지 않고, 특히 학생들의 논문이 제1저자로 게재되는 일은 아주 드문 일로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치과의료기관 직원의 임금만족은 직원의 연령, 근무하는 기관 종류, 월 평균수입, 근무경력, 주간 평균 근무 시간, 유닛체어 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앞으로 치과 의료 기관 직원의 임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논문을 지도한 치과대학 인문사회치의학교실 신호성 교수팀은 의료의 질 관리, 환자안전, 치과경영, 의료윤리 등 치과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치과 전문인으로서 치과의사가 지켜야 할 윤리적인 문제에서부터 임상적인 관리활동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실무적 접목이 가능한 교육과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원광대 치과대학은 각 교실별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구를 매년 진행해 정기적인 교내 논문 발표 대회를 진행함으로써 전국대회 논문 경연대회 출전 및 논문 출간을 도모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경찰서 새로온 경찰관 맞이 특별한 행사 이채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기존의 권위적인 직원 전입식에서 탈피해 감성적인 문화행사로 이를 탈바꿈시켜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새로 전입해 온 8명의 경찰관을 맞이하는 특별한 전입행사를 16일 오전 4층 강당에서 열었다.

그동안 경찰서의 전입인사는 대상자들이 정복을 차려입고 단상 위에 선 경찰서장에게 군대식으로 경례를 붙이며 전입신고를 하고 경찰서장 훈시를 듣는 순서로 진행돼 지극히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자리였다.

하지만 이 날 군산경찰서 직원 환영행사는 이채로웠다.

권위를 상징하는 무대 위 단상은 없었고 서장과 전입 직원 8명이 함께 원탁 의자에 둘러앉아 동료 경찰관으로 구성된 '어울림' 밴드의 섹소폰 축하연주를 들으며 전입 직원들이 근무하게 될 부서의 관리자가 장미꽃을 일일이 전달하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특히 함께 근무하게 될 동료들의 환영 동영상을 시청하며 끈끈한 동료애와 군산경찰서만의 가족같은 직장문화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전입 직원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선배 경찰관들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 것.

전입식에 참석한 홍상희 경사는 "이렇게 정이 넘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환영식은 처음이다"면서 "계급조직의 특성상 군대 못지 않은 딱딱한 인사 신고식만 접하다가 오늘 군산경찰의 환영식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자리였다"고 함박웃음을 보였다.

/군산=문정곤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제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게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젼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